

## 제2차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노정 운영협의체 개최

- 노동계와의 신뢰 기반 소통 및 정기 논의를 통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4일(목)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노정 운영협의체(부대표급)를 개최하였다.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과 각각 노정/경정 운영협의체를 발족하였고, 매월 정례 실무협의체(실장급)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번 제2차 운영협의체에서는 그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9월 시행 예정인 공무원위원회 등의 안정적 정착을 논의하는 한편, 4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 등은 노동계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정협의체는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소통의 자리”라며, “노동계와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노동정책의 완성도도 높아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간 구축된 노정 간 신뢰가 지난 3월 새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출범하고,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정 간 신뢰 구축과 소통의 채널인 노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044-202-7742)